

☞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기억되는 일화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홍해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1~12절)

11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 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13~15절)

13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4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 하시고

15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 나

3. 17절의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되 어떤 훈련으로 연단시키셨습니까? (참고 민 14:1~38)

- 12정탐꾼의 보고 후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

- 40년간 광야 훈련

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줄곧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만을 일삼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 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까?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6.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결단해 봅시다.

☞ 기도

광야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인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더 크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